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1, 2015. 2, pp. 263-288

성인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박 은 아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30세 이상 60세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AMOS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 방법을 사용 하였고,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해 모형을 변형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인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인외상경험과 외상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각각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현장에서의 실천적 전략과 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인외상, 낙관성, 관계의 질, 외상 후 성장, 팬텀변수, 다중매개효과

1. 서론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실패경험 등과 같은 외상경험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경험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이다(윤명숙・김서현, 2012; Romito and Grassi, 2007; Afifi et al., 2008; Borges et al., 2008).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대인외상경험으로 고통받는 클라이언트를 많이 볼 수 있다. 성폭력, 아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동학대 및 노인학대, 이혼 가정, 배우자의 외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사별, 단절 등), 가정 및 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소외 또는 따돌림을 당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더 이상 문제 중심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성장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

외상 후 성장과정은 그 동안 세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도식이 흔들리는 경험이며, 보다 복합적인 도식을 재건하는 힘든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주요한 목표와 신념, 세계관을 뒤흔들거나 훼손시킬만한 위협이나 고통 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는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극심한 고통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Tedeschi and Calhoun, 1995). 이에, 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 둘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이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이유리, 2010; 이명순·박경, 2011; 최선재, 2011; 김미영·김금순, 2012; Armeli et al., 2001; Rahmani et al., 2012; Chan and Rhodes, 2013)들이 진행되었으나, 관련 변수들이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유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외상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개인에게 외상 경험은 외상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정인명, 2009). 영향요인에 따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인 인지적인 측면에서 찾았다. 이로 인해 최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경향이 인지적 요인들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Zollner and Maercker, 2006).

외상 후 성장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1]들은 공통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인지적 요소와 관계적 요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Schaefer와 Moos(1992)의 이론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함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된 요인을 관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Tedeschi와 Calhoun(2004), Joseph과 Linley(2006) 또한 성장적 반추를 위해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상 후 성장과 관계적 요인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 동안 유의미한 관계로 확인된 관계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신선영·정남운, 2012; 조성미, 2012), 애착(김진수·서수균, 2011; 김현경, 2013; 이유리, 2010) 등이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관계의 단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는 한계가 있다. 한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집합주의를 중요시하며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는 타인, 즉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심리적인 안녕감이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iener et al., 2002).

한편, 외상 후 성장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자기조절을 하는 자율성, 성격차원의 발달과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외상 후 성장에서 성격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 요인 중 낙관성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서적 혼란을 적게 한다. 또한 삶의 위험사건 이후에

1) Schae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이론, Joseph와 Linley(2006)의 역경을 통한 성장 이론, Tedeschi와 Calhoun(1995; 2004)의 외상 후 성장 이론

도 개인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심리적응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정수, 2008). 낙관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시간과 맥락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인의 행동, 판단,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Scheier and Carver, 1985). 또한 낙관성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훈련들로 증진될 수 있다(신현숙·서윤주, 2010; 오윤숙, 2013; McDermott and Hastings, 2000). 이러한 특성은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얼마든지 개인의 낙관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인외상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전보람, 2012; Sears et al., 2003)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Ai et al., 2013) 등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여 외상 후 성장 연구의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다양한 외상 사건들을 단순 외상과 복합 외상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 성인 집단을 연구한 안현의와 주혜선(2011)의 연구결과 단순외상 보다 대인관계적 특성을 포함한 복합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혜원·안현의, 2006; Chopko, 2010; Wang et al., 2013)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대인외상경험의 경우 다른 외상경험보다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최선재(2011)는 외상을 유발한 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우연에 의한 외상 일 때보다 더 견뎌내기가 어려우며, 대인관계나 심리적인 측면의 상실을 경험할 경우 사별이나 죽음보다도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이수림(2013)은 비대인외상 유형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고 긍정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고 밝혔다. 즉, 대인외상보다 비대인외상일 때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최승미, 2008; 이미연 외, 2012)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외상경험은 비대인외상경험 보다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낮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지만(유현진, 2012), 전반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외상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큼 심리적 고통이 컸을 때 외상사건의 영향에 대처하면서 성장이 발생한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외상을 경험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경험, 즉 무기력감, 통제 불가능, 사람에 대한 위협감을 경험했는가의 여부가 외상 후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Linley and Joseph, 2004). Calhoun과 Tedeschi(2006)는 외상에 대한 지각된 위협과 위해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 정도가 크다고 하였고, 윤명숙과 박은아(2012)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들의 외상지각이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높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대인외상경험과 낙관성, 관계의 질의 관계

낙관성(optimism)이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행동을 통해 목표한 바대로 실천 하는 것을 말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원래부터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문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응한다(이희경, 2008). 이러한 낙관성과 대인외상경험과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에서 인과관계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인외상경험과 낙관성의 관련성이 확인된 연구결과(이창주, 2007; 전보람, 2012)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인명, 2009; 이명순・박경, 2011)가 있다. 전보람(2012)은 외상경험의 위협지각 중 현재의 위협지각이 암환자의 낙관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명순과 박경(2011)은 북한이탈여성의 낙관성은 외상경험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의 질은 사고와 느낌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소속감, 유대감, 심리적 안정감, 지지, 행복감 등 개인이 전반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감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인간외상경험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인관계 양상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기와 대인관계의 관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Salo et al., 2004). Williams(2006)는 대인간 외상의 후유증은 자신감의 상실뿐만 아니라 타인을 믿을 수 없게 된 고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후유증 중 핵심이라고 했다. 강민지와 김광웅(2008)은 대인관계에서의 외상경험과 친구관계의 질 사이에 부적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몇몇 선행연구들은 대인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의 매개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대인간 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간의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조은정・이기학, 2004; 이태영・심혜숙,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외상경험을 할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높아지게 될수록 관계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낙관성은 대인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권석만, 2010).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이러한 심리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니는 여러 성격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이경희, 2011).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낙관성을 유용한 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오선주, 2002).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관계변수인 사회적 지지, 애착, 관계만

족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관계를 유추 할 수 있다.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고(한주리 · 허경호, 2005), 또래지지와 낙관성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진다(유슬기 · 방희정, 2011). 이처럼 낙관성은 대인간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고(Geers et al., 1998), 더 호감을 주며(Carver et al., 1994),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Park and Folkman, 1997),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Dougall et al., 2001).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낙관성과 관계변수 즉, 관계만족, 사회적 지지, 애착은 그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보면, 대인간 관계의 질 또한 낙관성과의 긍정적 연관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3)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 관계의 질의 관계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연구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선행연구들에서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 후 성장과 낙관성 사이에 작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으며, Park 외(1996)는 종단연구로 두 번 측정한 결과, 처음 측정에는 외상 후 성장과 낙관성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103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Prati와 Pietrantoni(2009)의 연구결과, 낙관성은 사회적 지지와 함께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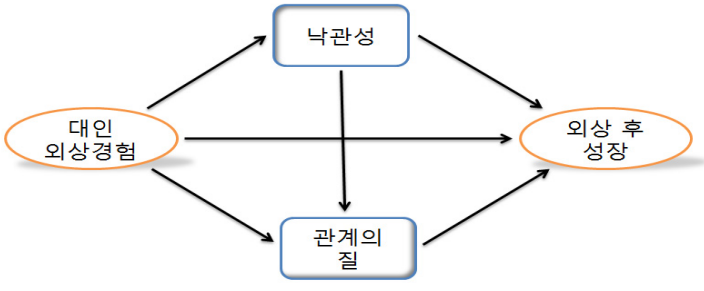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인정(2009)은 암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고찰 결과, 낙관성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연구(Sears et al., 2003)가 있는 반면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연구(Bellizzi and Blank, 2006; Smith et al., 2008)도 있었다. 또한, Ai 외(2013)의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낙관성과 개인의 성장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Bostock 외(2009) 또한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추후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계의 질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관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둘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암환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이 가족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가족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Zwahlen et al., 2010), 이는 관계적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사회복지계의 관심 증대가 더욱 필요시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이인정, 2009).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앞에서 대인관계적 요인으로 살펴본 관계만족, 사회적 지지, 애착 등을 꼽을

수 있다. 윤명숙과 김서현(2012)은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애착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유리, 2010)에 기반하여 관계의 질이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인외상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인외상경험은 낙관성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인외상경험은 관계의 질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대인외상경험은 낙관성과 관계의 질을 이중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인외상경험이 있는 모집단을 확인하기 어려워 서울, 경기, 대전, 전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표집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과정에서 참여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인 측면의 고려로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2013년 12월 27일 연구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 2013-11-009-001). 이후 2014년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88.6%인 53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설문지에서 제시한 총 6문항의 대인외상경험

중 단 한 문항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53부)와 설문 문항의 과반 수 이상을 체크하지 않은 등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자료(74부)를 제외한 405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3) 측정 도구

(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척도(PTGI)를 송승훈 외(2009)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최종 선별한 K-PTGI(16문항)를 사용하였다. K-PTGI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는 0점(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 5점(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23으로 나타났다.

(2) 대인외상경험

대인외상경험은 Goodman 외(1998)가 개발한 스트레스 생활사건 선별 질문지(Stressful life events screening questionnaire : SLESQ)를 유희정(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대인관계외상에 해당하는 4문항과,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인외상경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관계 단절(친구와의 절교, 연인과의 이별, 배우자와의 이혼 등)을 묻는 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 그리고 외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심각도를 함께 측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 KMO 값이 .735,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유의확률이 $p<.05(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했다. 요인은 단일차원임이 확인되어, 폭행의 경험을 묻는 5, 9, 7, 8번 문항과 관계를 묻는 12, 13번 문항을 각각 합해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항목 묶기를 실시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604로 나타났다.

(3) 관계의 질

관계의 질은 Norton(1983)이 개발하고 장춘미(2001)가 번안, 박운주(2013)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에서 10점 Likert형 척도로 전반적인 행복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가족' 5문항, 주변사람들을 포함한 '친구' 5문항으로 나눠 동일하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족'관련 문항은 '나와 내 가족은 좋은 가정(가족)생활을 하고 있다', '나와 가족의 관계는 안정적이다', '우리 가족의 유대는 강하다', '나는 가족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가족과 운명을 같이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와 같다. '친구'관련 문항의 구성도 위와 비슷하다. 문항의 점수는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그렇지 않다~7점 아주 많이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 KMO는 .904,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유의확률이 $p<.05(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은 가족(5문항)과 친구(5문항)인 2요인 구조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40으로 나타났다.

(4) 낙관성

낙관성은 Scheier 외(1994)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신현숙(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역점수로 채점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하지 못한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이 .713,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유의확률이 $p<.05$($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했고, 도출된 요인은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인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701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점검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9.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 방법[2]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해 모형을 변형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242명(59.7%)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159명(39.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161명(39.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40대 153명(37.8%), 50대 85명(2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229

2) bootstrap 분석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을 정상분포를 가정한 Sobel test equation 보다 더욱 민감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rout and Bolger, 2002).

명(56.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이하가 112명(27.7%)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57명(14.1%)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77명(6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혼 66명(16.3%), 이혼 30명(7.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결혼 상태인 동거나 사별 등은 22명(5.4%)으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다.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중'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38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하 이하' 129명(31.8%), '상 이상' 30명(7.4%)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184명(45.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무교가 143명(35.3%), 불교가 39명(9.7%), 천주교 26명(6.4%), 원불교 5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62명(40.0%)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9명(4.7%)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에 종교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명(23.2%),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다가 93명(23.0%)으로 종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187명(46.2%)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159	39.3	경제적 수준	하 이하	129	31.8
	여	242	59.7		중	238	58.8
	결측	4	1.0		상 이상	30	7.4
	계	405	100		결측	8	2.0
연령대	30대	161	39.7		계	405	100
	40대	153	37.8	종교	없음	143	35.3
	50대	85	21.0		불교	39	9.7
	결측	6	1.5		기독교	184	45.4
	계	405	100		천주교	26	6.4
학력	고졸이하	112	27.7		원불교	5	1.2
	대졸	229	56.5		기타	2	0.5
	대학원이상	57	14.1		결측	6	1.5
	결측	7	1.7		계	405	100
	계	405	100	종교 도움 정도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	162	40.0
결혼 상태	미혼	66	16.3		거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47	11.6
	기혼	277	68.4		도움을 받는다	94	23.2
	이혼	30	7.4		아주 많은 도움을 받는다	93	23.0
	기타(동거, 사별 등)	22	5.4		결측	9	2.2
	결측	10	2.5		계	405	100
	계	405	100				

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대인외상경험의 1요인은 평균 1.41점(SD 2.65점)으로 나타났다. 2요인은 평균 3.69점(SD 3.28점)으로 1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인외상경험 중 2요인의 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낙관성 1요인은 평균 3.69점(SD .69점), 2요인은 평균 3.35점(SD .82점)을 보였다. 관계의 질은 1요인은 평균 5.30점(SD 1.23점), 2요인은 평균 5.02점(SD 1.19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 1요인은 평균 2.78점(SD 1.02점), 2요인은 평균 2.57점(SD 1.04점), 3요인은 평균 2.84점(SD 1.14점), 4요인은 평균 2.04점(SD 1.68점)으로 나타나 3요인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주요변수의 관측변인 모두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첨도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변 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표준편차)	첨도 (표준편차)
대인외상 경험	대인외상1	405	1.41	2.65	.832(.121)	2.721(.242)
	대인외상2	405	3.69	3.28	-.293(.121)	4.313(.242)
낙관성	낙관성1	405	3.69	0.69	-.238(.121)	.359(.242)
	낙관성2	405	3.35	0.82	.072(.121)	-.153(.242)
관계의 질	관계의 질1	405	5.30	1.23	-.660(.121)	-.061(.242)
	관계의 질2	405	5.02	1.19	-.480(.121)	-.183(.242)
외상 후 성장	외상후성장1	405	2.78	1.02	-.129(.121)	-.212(.242)
	외상후성장2	405	2.57	1.04	-.088(.121)	.039(.242)
	외상후성장3	405	2.84	1.14	-.265(.121)	-.258(.242)
	외상후성장4	405	2.04	1.68	.258(.121)	-1.222(.242)

한편, 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가 $p<.0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대인외상경험	낙관성	관계의 질	외상 후 성장
대인외상경험	-			
낙관성	-.125*	-		
관계의 질	-.176***	.462***	-	
외상 후 성장	.005	.357***	.3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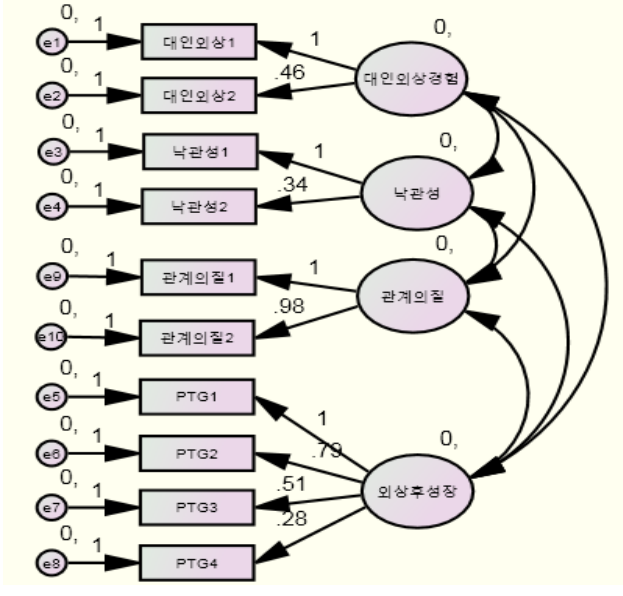
***$p<.001$, **$p<.01$, *$p<.05$

3)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

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추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대인외상경험, 낙관성, 관계의 질, 외상 후 성장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56.791(df=29) p<.01(p=.002)로 χ^2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통계량은 사례 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FI=.988, TLI=.981, RMSEA=.049, SRMR=.0339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2〉, 〈표 4〉와 같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화계수 값이 .399~.977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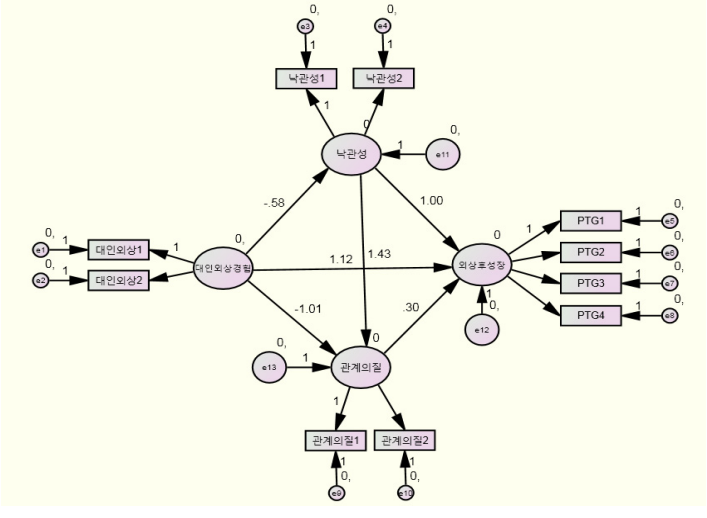
〈표 4〉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대인외상	대인외상1	.995	1.000		
	대인외상2	.977	.464	.026	17.789***
낙관성	낙관성1	.927	1.000		
	낙관성2	.399	.341	.065	5.241***
관계의 질	관계의 질1	.766	1.000		
	관계의 질2	.778	.976	.093	10.541***
외상 후 성장	외상후성장1	.847	1.000		
	외상후성장2	.786	.787	.048	16.541***
	외상후성장3	.779	.513	.031	16.396***
	외상후성장4	.428	.277	.033	8.311***

χ^2 =56.791, df=29, p<.01(p=.002), CFI=.988, TLI=.981, RMSEA=.049, SRMR=.0339

4)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결과 χ^2=56.797(df=35), p<.05(p=.011), CFI=.99, TLI=.987, RMSEA=.039, SRMR=.0341으로 나타나 필요한 요구 적합도를 충족시켰으며 그 결과는 〈그림 3〉,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대인외상경험은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이며, 낙관성과 관계의 질은 대인외상경험과 부적인 관계이지만, 외상 후 성장과는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외상 후 성장을 증가시키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대인외상경험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게 인식하지만,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구조모형

〈표 5〉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경 로			Estimate		S.E.	C.R.	SMC
			표준화	비표준화			
대인외상경험	→	낙관성	-.157	-.576	.197	-2.919**	.025
대인외상경험	→	관계의 질	-.112	-1.015	.485	-2.094*	.372
낙관성	→	관계의 질	.582	1.431	.272	5.259***	.
낙관성	→	외상후성장	.371	1.000	.307	3.26***	.318
관계의 질	→	외상후성장	.27	.296	.103	2.885**	
대인외상경험	→	외상후성장	.113	1.124	.488	2.305*	

χ^2 =56.797, df=35, p<.05(p=.011), CFI=.99, TLI=.987, RMSEA=.039, SRMR=.0341

5) 매개효과 분석

(1) 전체매개효과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Bootstra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Bias Corrected: BC)이 하한과 상한사이(-1.882~ -.538)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 즉, 낙관성과 관계의 질은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매개효과 분석

경로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ias-corrected
대인외상 → 외상후성장	.004	1.124	-1.120	-1.882 ~ -.538**

(2) 개별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각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는 일종의 가상의 변수로서 모델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배병렬, 2011). 따라서 원모형과 변환모형은 수학적으로 동일모형이 되도록 제약을 가해주어야 한다(홍세희, 2011).

본 연구의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 자리에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팬텀변수로 연결되며, 팬텀변수에서 종속변수인 외상 후 성장까지의 계수를 1로 고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오차항을 삭제한 뒤 팬텀변수에 이를 대입하고, 구조모형 분석에서 도출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계수값을 오차항에서 팬텀변수에 이르는 오차계수값으로 지정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계수값들은 비표준화된 값이어야 한다(홍세희, 2011).

본 연구 모형에서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할 간접경로는 (1) 대인외상경험→낙관성→외상 후 성장, (2) 대인외상경험→관계의 질→외상 후 성장, (3) 대인외상경험→낙관성→관계의 질→외상 후 성장의 3가지 경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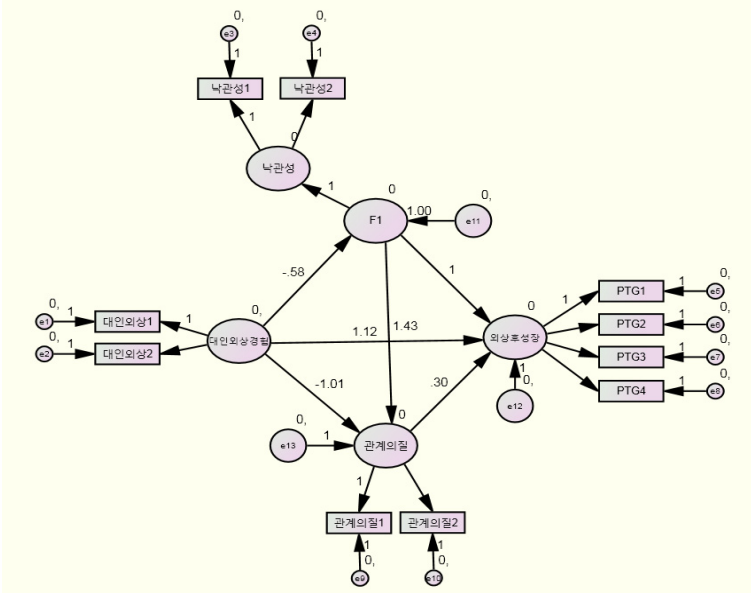
각 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낙관성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한 '모형 1'의 결과는 〈그림 4〉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대인외상경험→F1은 경로계수가 -.58이고 95%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960 ~ -.177)에'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했다. 즉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관계의 질의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한 '모형 2'결과는 〈그림 5〉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외상경험→ F2은 경로계수가 -.30이고 95%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2.825 ~ -.738)에'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했다. 즉,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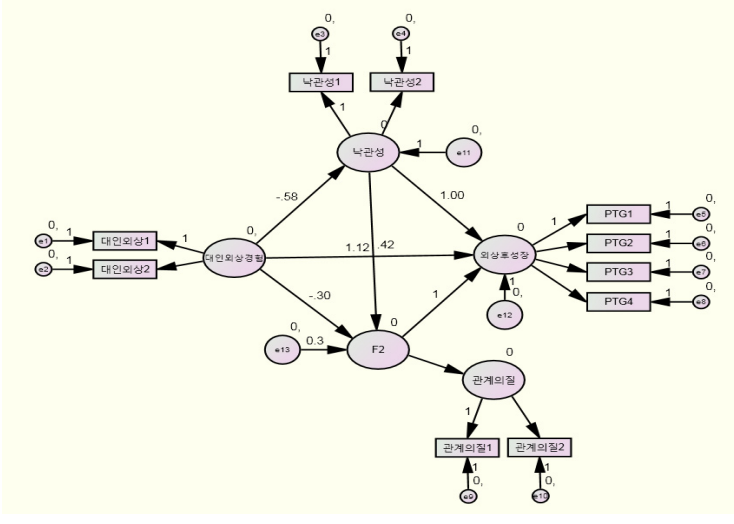
세 번째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한'모형 3'의 결과는 〈그림 6〉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외상경험→F1은 경로계수가 -.24이고 95%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672 ~ -.053)에'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했다. 이와 같이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 모형에서 추정된 비표준화값을 고정하는 과정을 2회 거쳐 이중 매개에 대한 변환모형으로 단계별 검증을 실시한다(김미옥・정하나, 2013). 본 연구에서 이중매개 검증은'대인외상경험→낙관성(매개변수 1)→관계의 질(매개변수 2)→외상 후 성장'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외상경험에서 F1에 이르는 경로계수 -.24는 구조모형에서 대인외상경험에서 낙관성에 이르는 경로계수 -.58과 낙관성에서 관계의 질로 이르는 경로계수 1.43, 관계의 질에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계수 .30을 곱한 간접효과 크기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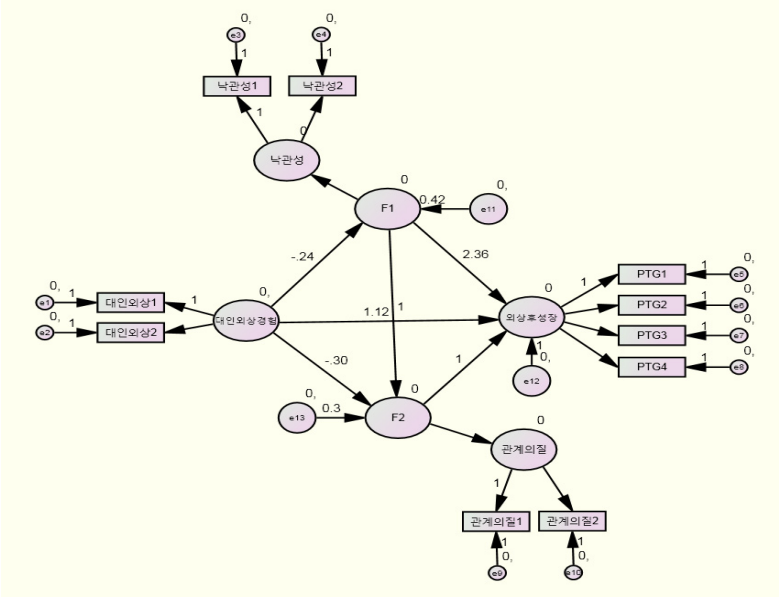
지금까지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확인한 3개 경로의 특정간접효과인 -.58(낙관성 매개효과), -.30(관계의 질 매개효과), -.24(낙관성,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모두 더하면 전체 간접효과 계수인 -1.12와 같아, 본 구조모형과 팬텀변수를 생성한 변형 모형의 결과가 같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팬텀변수를 생성해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낙관성의 부분매개효과, 관계의 질의 부분매개효과, 그리고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이중 부분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모형 1_팬텀변수를 활용한 낙관성 특정간접효과 검증



〈그림 5〉 모형 2_팬텀변수를 활용한 관계의 질의 특정간접효과 검증



〈그림 6〉 모형 3_팬텀변수를 활용한 낙관성, 관계의 질의 특정간접효과 검증

〈표 7〉 팬텀변수를 활용한 관계의 질의 특정간접효과 분석 결과

모형	경 로	Estimate	S.E.	Bias-corrected
모형1	대인외상경험 → 관계의 질	-.30	.188	-2.825 ~ -.738*
모형2	대인외상경험 → 낙관성	-.58	.197	-.960 ~ -.177**
모형3	대인외상경험→낙관성→관계의 질	-.24	.111	-.672 ~ -.053*

x2=56.797, df=35, p<.05(p=.011), CFI=.99, TLI=.987, RMSEA=.039, SRMR=.0341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외상에 대한 지각된 위협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정도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윤명숙・박은아, 2011; 2012; Linley and Joseph, 2004; Calhoun and Tedeschi,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상사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위협이나 고통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인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다는 것은, 대인외상경험을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관성은 다양한 생활사건이나 후천적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으므로(오윤

숙, 2013; Peterson and Steen, 2002), 외상경험 후 개인의 대처자원인 낙관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낙관성은 외상 사건을 가볍게 여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인명, 2009). 뿐만 아니라 낙관성은 통제 위험뿐만 아니라 불통제 위험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다(김정수, 2008). 불통제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우리가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더욱 위협적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불통제 위험상황에서 대인외상을 경험했거나,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 중심으로 낙관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인외상을 경험했을 때 낙관성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외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낙관성 자체가 모두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낙관성의 특성 자체가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문제 중심의 대처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 이에 대인외상경험이 낙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대인외상경험으로 인해 낮아진 낙관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관계의 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의 질은 그 동안 관계적 변수인 사회적 지지, 애착, 만족도 등 단편적으로 살펴본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변수이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전반적으로 지각하는 관계의 질이다.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은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며(Cummins, 1996), 행복도 상위 10% 집단의 행복요인이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Diener and Seligman, 2002)라고 밝힌 점은 전반적인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준다. 이에, 대인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친밀감 및 만족감, 소속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관성이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그러한 지각이 높을수록 내재화된 문제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신현숙, 2006).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면 관계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에, 낙관성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높아져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인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개입할 때 낙관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개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외상경험자들의 낙관성과 관계의 질에 대한 고려는 외상경험자의 심리적인 고통은 경감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피해자, 집단 따돌림, 이혼 등 대인외상 경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현장에서 개입계획을 세울 때 그들의 낙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은 20여년에 걸친 실험과 조사연구를 통해 만성적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펜실베니아 예방 프로그램; The Penn Prevention Program)을 개발하였다(Seligman et

al., 1995). 이 프로그램을 노영천과 유순화(2008)가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교사들에 비해 낙관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McDermott와 Hastings(2000)는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희망을 높이는 개입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희망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책이나 학생들의 에세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낮은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이 외에도 국내 연구에서도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신현숙·서윤주, 2010; 오윤숙,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낙관성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에, 대인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회복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낙관성이라는 요인은 사회복지학에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그 어떠한 대상자보다도 낙관성 증진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대인외상경험의 경우 통제 상황에서 보다 불통제 상황에서 경험할 때 그 심각성이 더 클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은 성폭행,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관계 단절, 집단 따돌림 등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인외상을 경험한다. 이에, 통제 상황 뿐만 아니라 불통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낙관성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대인외상경험자의 관계의 질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인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낮은 자존감, 관계에서의 소외감 등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대인외상경험자에게 관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인외상경험자의 치료 및 상담현장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의 가까운 지인이 함께 참여하여 대인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인외상경험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후유증 중 핵심이라는 선행연구(Williams , 2006)에 근거,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며 부적절한 자기 노출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자기개방과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감적 조율(empathic attunement)등에 기반을 둔 관계 중심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대인외상경험자들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대상으로 다양한 외상의 종류, 외상 수준을 고려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훈련과정이 보수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접점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전문화된 심화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외상유형별 대응과 개입 매뉴얼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진행이 필요하며, 실무자들이 실천현장에서 외상경험자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개입, 대인외상 중에서도 폭행 피해자에 대한 개입, 소외나 따돌림

피해자를 위한 개입, 이혼 대상자를 위한 개입 등 외상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대인외상경험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본 연구결과에서 검증된 낙관성과 관계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경로들을 밝혀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 과정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내기에 양적연구방법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 등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의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간명성을 위해 외상 후 기간 등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함께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외상 후 성장관련 연구의 분석 방법에 따라 외상 후 기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과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관계를 상관관계의 관점으로 본 다면 외상 후 성장이 높을수록 낙관성과 관계의 질 또한 높을 수도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반복적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과 일회성 대인외상을 경험한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장진이, 2010)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반복적 대인외상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따라 낙관성과 관계의 질의 영향력에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인지적 과정,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개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강민지 · 김광웅, 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래관계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87-101.

권석만, 2010,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김미영 · 김금순, 2012,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희망, 핵심신념,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4): 493-502.

김미옥 · 정하나, 201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65(4): 115-138.

김정수, 2008, “위험사건의 통제가능성 지각에서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와 이점발견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수 ·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김현경, 2013, “남한거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4: 225-262.

노영천 · 유순화, 2008,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6(3): 139-157.

박운주, 2013,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 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혜원・안현의, 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1): 201-214.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송승훈・이홍석・박준호・김교헌,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신선영・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신현숙, 2006, “대입 수험생의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2): 485-503.

신현숙・서윤주, 2010,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여자 중학생의 성향적 낙관성, 우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295-313.

안현의・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오윤숙, 2013,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슬기・방희정,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169-185.

유현진, 2012, “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명숙・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5-32.

윤명숙・박은아,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12): 61-89.

_____, 2012, “정신장애인 가족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8(12): 201-228.

이경희, 2011,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순・박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39.

이미연・김지혜・조용래, 2012, “외상유형, 자아 탄력성 및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1.

이수림, 2013, “외상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이유리, 2010, “외상 후 성장의 애착-인지 모형 검증: 입양 미혼모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정, 2009, “암 경험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체계적 고찰”,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6: 81-113.

이창주, 2007,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역할”,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태영・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이희경, 2008, “낙관성/비관성, 문제해결평가 및 정적/부적 감정 간의 관계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03-623.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보람, 2012, “위협지각, 낙관성 및 삶의 의미가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인명, 2009,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미, 2012, “청년의 외상후 성장에대한 인지요인, 사회적 지지 및 리질리언스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정・이기학,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최선재, 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주리・허경호, 2005,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 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28: 251-293.

홍세희, 2011,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S & M 리서치 그룹.

Afifi, T., Enns, M., Cow, B., Asmundson, G., Stein, M., and Sareen, J., 2008,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 946-952.

Ai, A. L., Hall, D., Pargament, K., and Tice, T. N., 2013, “Posttraumatic growth in patients who survived cardiac surgery: The predictive and mediating roles of faith-based factor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6: 186 - 198.

Armeli, S., Gunthert, K., and Cohen, L. H., 2001, “Stressor appraisals, coping, and post-event outcome: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66-395.

Bellizzi, K. M., and Blank, T. O., 2006,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1): 47-56.

Borges, G., Benjet, C., Medina-Mora, M. E., Orozco, R., Molnar, B. E., and Nock, M. K., 2008, “Traumatic events and suicide-related outcomes among Mexico City adolescent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6): 654-666.

Bostock, L., Sheikh, A. L., and Barton, S., 2009, “Posttraumatic growth and optimism in health-related trauma: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6(4):

281-296.

Calhoun, L. G., and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3-23, in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edited by Calhoun, L. G., and Thdeschi, R. 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rver, C. S., Kus, L. A., and Scheier, M. F., 1994, "Effects of good versus bad mood and optimistic versus pessimistic outlook ons social acceptance versus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2): 138-151.

Chan, C. S., and Rhodes, J. E., 2013, "Religious copi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female survivors four years after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 257 - 265.

Chopko, B. A., 2010, "Posttraumatic distress and growth: An empirical study of police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4(1): 55-72.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303-328.

Diener, E., and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Diener, E., Lucas, R. E., and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463-473, in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2nd), edited by Snyder, C. R., and Lopez, S. 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ugall, A. L., Hyman, K. B., Hayward, M. C., McFeeley, S., And Baum, A., 2001, "Optimism and traumatic stress: The importance of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23-245.

Geers, A. L., Reilly, S. P., and Dember, W. N., 1998, "Optimism, pessimism and friendship",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gn, Personality, Social*, 17: 3-19.

Goodman, L. A., Corcoran, C., Turner, K., Yuan, N., and Green, B. L., 1998, "Assessing traumatic event exposure: General issues and preliminary findings for the stressful life events screening questionnair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3): 521-542.

Joseph, S., and Linley, P., 2006, "Growth following advers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1041-1053.

Linley, P. A., and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McDermott, D., and Hastings, S., 2000, "Children: Raising future hopes", 185-199, in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edited by Snyder, C. R., San Diego, CA: Academic Press.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Park, C. L., Cohen, L. H., and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94: 71-105.

Park, C. L. and Folkman, S.,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psychosocial resources during caregiving and bereavement in partners of men with AIDS", *Journal of Personality*, 65: 421-447.

Peterson, C., and Steen, T. A., 2002,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244-256, i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ited by Snyder, C. R., and Lopex, S. J.,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rati, G., and Pietrantoni, L., 2009, "Optimism, socials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4: 364 - 388.

Rahmani, A., Mohammadian, R., Ferguson, C., Golizadeh, L, Zirak, M., and Chavoshi, H., 2012, "Posttraumatic growth in Iranian cancer patients", *Indian Journal of Cancer*, 49(3): 287-292.

Romito, P., and Grassi, M., 2007, "Does violence affect one gender more than the other? The mental health impact of violence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65: 1222-1234.

Salo, J., Punamaki, R., and Qouta, S., 2004, "Association between self and other representations and posttraumatic adjustment among political prisoners", *Anxiety, Stress, and Coping*, 17: 421-439.

Schaefer, J. A., and Moos, R. H.,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149-170, in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dited by Carpenter, B. N.,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Scheier, M. F., and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Scheier, M. F., Carver, C. S., and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Sears, S. R., Stanton, A. L., and Danoff-Burg, S., 2003, "The yellow brick road and the emeraldcity: Benefit finding, positive reappraisal coping and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Health Psychology*, 22(5): 487-497.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and Gillham, J.,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Smith, B. W., Dalen, J., Bernard, J. F., and Baumgartner, K. B., 2008, "Posttraumatic growth in non-Hispanic white and hispanic women with cervical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6(4): 91-109.

Tedeschi, R. G., and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_____,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_____,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Wang, Y., Wang, H., Wang, J., Wu, J., and Liu, X., 2013,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in accidentally injured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20: 3 - 12.

Williams, W. I., 2006, "Complex trauma: Approachs to theory and treatment",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321-335.

Zollner, T., and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Zwahlen, D., Hagenbuch, N., Carley, M. I., Jenewein, J., and Buchi, S., 2010, "Posttraumatic growth in cancer patients and partners—effects of role, gender and the dyad on couples'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Psycho-Oncology*, 19: 12-2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Park, Eun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hich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influences posttraumatic growth. It focuss on verifying the impact of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to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to posttraumatic growth. And also it is to verify dual mediating effect between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405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30-60 age group.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AMOS program, Structure Equation Model(SEM)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Finally, Phantom Variable was utilized for verification of indirect influence of a multi mediating eff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level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the higher posttraumatic growth they have. Second, it shows that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Third, it was analyzed that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had doubl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 discussion reinforced the importance of intervene with its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in the site of those who experience interpersonal trauma.

Theological,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a series of significance in terms of that this study confirmed its influence considering the quality of relationship from interpersonal experience among relevant factors of traumatic accident, optimism among individual factors, quality of relationship among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the crisis of life and the theory of individual growth'. econd, even though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ere proved as major predictors for posttraumatic growth of those who experience interpersonal traumatic, psychological support center for traumatic experience is not operated systematically in Korea. Third, this study implies that it should intervene mainly with its optimism and quality of relationship in the site of those who experience interpersonal trauma such as any abuses including sexual abuse, bullying, and divorce.

Key words: interpersonal trauma, optimism, quality of relationship, posttraumatic growth, phantom variable, multiple mediating effect

〔논문 접수일 : 15. 01. 12, 심사일 : 15. 01. 20, 게재 확정일 : 15. 02. 11〕